Analyst: Yuanta Research (중국)
+86 21 6187 3832 / research@yuanta.com
번역: Yuanta Research (한국)

미-이란 갈등고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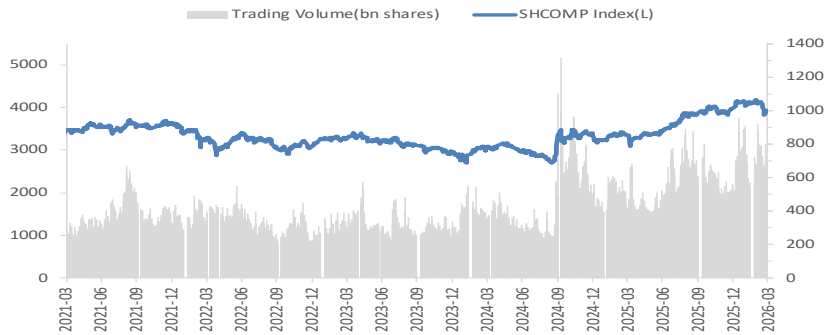
미-이란 갈등고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과 중국 공업기업 1~2월 누적 이익 전년대비 15.2% 증가: 미·이란 충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A 주 시장도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 연동되어 조정을 받고 있다. 이란은 자국 철강 공장과 핵시설이 폭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, 이후 바레인과 UAE 의 알루미늄 제련소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분쟁이 한층 격화됐다. 세계 최대 단일 부지 알루미늄 제련소인 바레인 알루미늄(Aluminum Bahrain, Alba)은 생산량을 20% 감축했으며, 이는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란은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.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옌부항을 통해 원유 수출을 시작했다. 미국 증시에서는 투매가 나타나 3대 지수가 모두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, 달러/엔 환율도 큰 폭으로 변동했다. 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이 3월 12일과 13일 두 건의 대중국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,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3월 27일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무역장벽 조사에 착수했다.

1~2월 누적기준 중국의 특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총이익은 전년대비 15.2% 증가한 RMB1.02456조를 기록하며 이익 증가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음을 보여주었다. 특히 장비 제조업과 원자재 섹터가 두드러졌다. 비철금속 섹터는 전년대비 20.5%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. 자동차/스마트 소비재 섹터 역시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어 빠른 이익 성장을 실현해 산업생산의 구조적인 개선을 보여줬다.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'2026년 금융안정업무회의'를 개최해 리스크 예방 및 해소, 기술적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.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는 중소형 규모 투자자들의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. 미-이란 갈등으로 A 주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하다. 4월 실적 시즌임을 감안했을 때 가격 인상이 진행중인 비철금속과 화학 섹터에 주목할 것이 권고되며, 신에너지 섹터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.

주: 발간일 2026.04.01

중국 시황

상해종합지수 수익률



자료: Bloomberg, Yuanta Investment Consulting